

## 분별성과 의타성

| 월인 |

이 세계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의타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의타성이 가능하려면 먼저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저것', '있다고 없다'는 일종의 분별일 뿐임을 보아야 합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 현상은 분별을 기본으로 한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이사理事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理는 경험적 인식을 초월한 것이고, 사事는 모든 경험적인 현상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진여문(본질)에서 말하는 현상과 본질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事인 현상現象은 분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 망념(망령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현상은 분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 없는 것이니, 그 현상 역시 진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심진여문에서 보는 현상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모든 현상도 진여문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손가락이 손에 나타난 일종의 현상이라고 해봅시다. 이 현상(손가락)들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손이잖아요? 손가락이 손을 떠날 수 있나요? 손가락을 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엄지, 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일 뿐, 이 모두는 그저 손입니다. 물론 손도 이름이지만 말이죠. 이와같이 모든 현상은 이름과 분별일 뿐 사실은 심진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붙인 것은 망념妄念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가락은 이름 붙였기 때문에 다섯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손 자체’입니다. 모든 현상은 이름과 모습만 떼버리면 본질 자체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는 의식만 없다면 손가락은 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

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모습’을 본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요? 집을 보면 집의 어떤 분별된 모습이 보이고, 산을 보면 산의 분별된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모습을 떼면 본질이라 합니다. 그 이름과 모습을 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름을 떼는 감지感知(깨어있기™ 용어) 연습과 모든 ‘느낌’이라는 모습마저 떼는 감각感覺(깨어있기™ 용어)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심진여문에서는 모든 현상을 다 본질이라고 봅니다. 개념만 떨어져 나가면 이미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서울 사무실 안에는 난로, 형광등, 벽, 책꽂이, 책상, 다른 사람 등등이 있죠? 그 이름 붙여 나누는 마음만 사라지면,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의 그림자인 감각感覺™ 상태로만 들어가면 그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책상이 어디 있고 탁자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로 아닌 한 덩어리도 아닌 불이不二의 세계인 것이죠.

이렇게 분별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현상계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저것은 저것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의지하는 현상이기에 그 뿌리의 허망함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 인연因緣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因은 내적인 원인이고 연緣은 외적인 원인이라 했었죠. 모든 현상의 인因은 심진여입니다. 본질 때문에 현상이 생겨나기에 그렇습니다. 인因은 본질이고, 외부의 무언가라고 여겨지는 것은 연緣인데 그 인因과 연緣이 합쳐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 없는 것과 같기에 ‘분별’ 또한 없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현상이 본질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심진여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진여문에서 보는 본질은 뭘까요? 이理죠. 경험적 인식을 초월한 이理는, 말은 있으나 실체는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진여’라고 이름은 붙여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있다, 없다’는 것 자체가 개념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진여라는 말은 있지만 그 실체는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여문에서 보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뭘 경험했다고 그러합니다. 경험한 자는 누구고, 본질은 또 뭘가요? 그것이 다 착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심진여문에서 얘기합니다.

### 분별성과 의타성

지금까지 심진여문(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 보는 이사理事를 살펴봤는데, 이제 심생멸문(현상으로 나타난 세계)에서 보는 이사理事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생멸문(현상계) 안에도 본질과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멸문 자체가 현상인데, 그 생멸문 안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먼저, 생멸문에서 보는 사事인 현상은 만물과 마음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생멸문의 현상은 인연(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 것이 있다), 즉 ‘의타성依他性(다른 것에 의존함)’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에 비해 심진여문에 있어서 현상의 핵심은 ‘분별성’입니다. 그런데 분별성과 의타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타依他的 타他가 분별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자타自他를 나누는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자타의 ‘분별’이 이루어진 후에 ‘나’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의타성이예요. 그러니까 의타성의 기본은 ‘분별’입니다. 내가 남에게 고마워하려면, 그 이전에 나와 남이 구분되고 달라

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화가 나려면 나와 저 사람이 나뉘어야죠. ‘저런 나쁜 자식’ 하고 욕하려면 나와 저 자식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분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의 내적인 ‘분열’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의타(依他)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멸문의 모든 현상은 ‘분열에 기반한’ 의타성 즉, 인연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 때문에 이것이 생겨나죠.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날 때 어때요?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믿음의 에너지가 붙어 그 생각과 다른 뭔가와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바로 감정이죠. 즉 감정은 두 개의 다리(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 + 그 생각에 반하는 생각이나 상황)에 의존하고 있고, 중심축은 믿음에 의존하고 있으며, 믿음은 생명력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 화가 되는 거고, 저런 모습으로 변하면 생각이 되는 거죠.

생멸문에서 보는 이(理)인 본질은 뭘까요? ‘생멸상을 떠났으나, 항존(恒存)함이 없이 연을 따라 유전(流轉)한다’를 통해서 본질을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생멸심에서 보는 본질이란 생멸심을 떠나는 것인데, 생멸심을 떠나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생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는 현상이죠. 일정기간 무엇인가가 유지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유지되는 시간이 길 뿐이지 이 역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자(量子 · Quantum)는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소립자는 찰나 찰나마다 생겨났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립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찰나의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우리 감각에는 소립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이렇게 우리 감각기에 잡히지 않는 것에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냈고, 천천히 나타났다 오래 지속되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존재함’이라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둘 다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현상’인데 말이죠. 만약 우리의 1,000년을 1초로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게 우리 인간은 소립자만큼이나 빨리 나타났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에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현상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와 현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존 휠러는 ‘존재는 관계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생멸문에서 보는 본질은 ‘생멸상을 떠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멸상을 떠나서는 개별적인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는 인연을 따라 유전하지요 즉,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 자체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없으면 생멸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 경험되는 어떤 현상에도 동일시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멸문 안에도 현상과 본질을 모두 갖추고 있고, 진여문 안에도 현상과 본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러나 생멸문과 진여문 안에 현상과 본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심법一心法이고, 현시정의顯示正義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생멸문 안에 있는 사람은 중생이고, 진여문에 있는 사람은 부처입니다. 그런데 진여문 안에도 현상과 본질이 있고, 생멸문 안에도


현상을 현상으로 보기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의 느낌일 뿐이야'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은 본질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되는 어떤 현상에도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과 본질이 있으니까 생멸문 안에서 살고 있는 중생도 결국 본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상을 현상으로 보기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의 느낌일 뿐이야'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은 본질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되는 어떤 현상에도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본질에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라고 할 것도 없지요. 마치 바다에 녹아버린 소금인형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것이 서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잠시 동안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나라는 역할의 배' 위에서 있다가 쓱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바다의 부표浮標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항상 A부표 위에 서서 B부표, C부표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것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A는 '나라는 느낌'입니다. B는 '화가 난 느낌'이고, C는 '우월한 느낌'이고, D는 '비굴한 느낌'이고, E는 '자궁심을 가진 느낌'이에요. 화가 나면 화와 동일시되고, 비굴함이 느껴지면 비굴함과 동일시되었지요. 그러다가 관찰을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그것들이 화의 '느낌'이고, 비굴함의 '느낌'임을 알아채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자궁심을 보면서 '아~ 나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자궁심'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자궁심은 자궁심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있고 화는 화대로 있는 거예요. 이쯤 오면 이제 동일시는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 ‘나’라는 느낌, 마지막 관문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즉,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나’라는 것도 일종의 부표더라는 것이예요. 마음에 나타난 일종의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다른 ‘부표’와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나’라는 것도 느낌이라는 것을 알 때, 다른 느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이 부표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질 않습니다. ‘나’가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역할로서의 중심만 남게 되지요. 즉 ‘나’는 때에 맞추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마음의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더 이상 묶여있거나 그것이 주인이 되도록 두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느낌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을 밝혀보려고 그렇게 천착穿鑿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구조를 밝히려려고 하죠. ‘나’가 어떻게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도 마음의 다른 구조 중 일부, 마음의 움직임들과 다르지 않음을, 조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의 ‘느낌’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타 마음의 움직임과, ‘내’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라는 것에 묶이지 않고 ‘나’에 머물지 않게 되며, ‘나라는 부표’ 위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누가? 생명력이. 더 이상 생명의 본질이 어느 특정한 부표 위에 서서 일정한 모습을 띠는 채 ‘내가 주인이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것,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부표 위에서 마음의 한 부분이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면, 생명의 힘은 더 이상 그 어떤 부표에도 머물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 그냥 어느 부표 위에 서서 작용을 하고 다시 사라질 뿐,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應無所住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基心,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마음을 내어 쓰는 것이죠. 거기에 주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실 주인은 없어요. 임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가짜를 ‘자기’라고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슬프면 죽을 것 같고, 가짜가 기쁘면 황홀한,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로부터 ‘삶은 마야Maya(환영)’라고 해왔던 이유입니다. 결국 마음의 삶입니다. 이상이 현시정 의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불이二的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선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선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